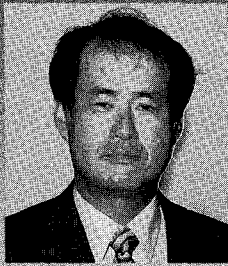


오 리



김 정 인
(신촌사료(주) 부사장)

옛 날부터 우리나라에는 육류중에서 금기 식품이 많았다. 임산부들에게 오리나 토끼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남정네들에게는 닭날개를 먹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다. 대부분 근거가 없는 비과학적인 것이었고 가뜰이나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한 서민들을 괴롭히기도 하였다. 물론 예외적으로 여름철의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라는

것은 상하기 쉬운 돼지고기를 잘못 먹어서 탈이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인 현명한 방안이기도 하다.

요즈음에는 이런 금기식품의 개념이 무너지거나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식도락으로 즐기고 있고 특히 오리는 팔목할만한 소비층가를 하고 있다. 오리는 10여년 전부터 모회사 대대적으로 산오리라는 브랜드를 걸고 생산 판매를 시작하여 전남 나주지역에 국한되었던 대규모 오리사육과 오리요리붐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에 맞는 고효율의 육용 산란용 오리사료가 개발되어 1999년 현재 우리나라의 오리사육수는 420만수를 넘어서고 87% 이상의 오리농가가 전업농으로서 대규모화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다.

현재 오리요리는 여름철 보신식품의 범주를 넘어서 일년내내 사랑받고 있는 식품이 되었다. 한국의 양계업자들도 거의 한번쯤은 오리사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보았을 것으로 사료되어 양계 유사산업으로써 관심을 가질만 한 몇 가지를 기술해 보고자 한다. 오리는 동물분류학상 기러기목 오리과 오리아과에 속하는 야생오리를 가금화 하였고 기원전 2~3천년 전에 이집트에서, 아시아에서는 기원전부터 중국 남부 늪지에서 사육되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육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시대때 난용종인 카키캄벨이 6·25전쟁 후 덴마크에서 오리를 원조받아 사육한 기록이 있다. 30여년전 부터 전남 나주지방에서 집단사육이 시작되어 모농산이 일으킨 「산오리」 붐이 기폭제가 되어 전국적으로 오리사육과

오리식당이 증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오리사육 및 질병에 관한 연구는 역사도 짧고 투자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지난 5월에 대만의 오리산업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받은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다. 대만정부는 1968년도에 오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소를 설립하여 오늘날 5개 연구소에서 수많은 석박사가 육종, 질병, 영양,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농민들은 이들의 기술적인 지원과 교육을 받아 오리알과 고기를 효율적으로 생산함은 물론 전체 생산량의 약 40% 가량을 일본에 수출하여 외화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한국처럼 단순히 종압(종자용 어미 오리)을 수입하여 병아리를 부화 생산하는 단계를 넘어서 육종을 활발히 하여 건강하고 경제적인 오리를 기르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인 오리 폐혈증 바이러스성 간염, 바이러스성 장염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가금콜레라(양계의 C.R.D.와 유사)가 첫번째 중요질병이라고 하는 등 질병 발생양상도 크게 차이가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5~12 일령 사이에 사망율이 40% 정도에 이르는 등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바이러스 간염의 경우 대만은 백신을 접종하여 거의 100% 예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완료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양과 질병에 대하여 관련기관에서 더욱 더 체계적인 연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몇 가지 일반 상식과 다른 오리사육에

대한 포인트를 지적하며 이 글을 맺을까 한다.

1. 오리는 질병에 강하다(?).

맞다. 그러나 닭과 마찬가지로 관리가 좋지 않거나 밀사시에는 각종 질병에 걸린다. 특히 더위에는 약하므로 하절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시원하게 해 주어야 한다.

2. 오리는 더럽게 먹어도 괜찮다(?).

아니다. 구정물로도 오리는 잘 큰다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곰팡이독소(아플라독소)에는 닭보다 몇십배 강하다.

3. 오리와 닭은 같이 사육해도 괜찮다(?).

아니다. 오리의 가금콜레라는 닭에 전염된다. 오리는 뉴캐슬병에 미약한 호흡기 증상 밖에 보이지 않지만 보균하여 닭에게 전파될 수 있다. 오리장과 양계장은 가능한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4. 시중에서 판매되는 기러기는 오리가 아니다(?).

오리이다. 현재 일부 식당에서 기러기라고 판매하고 있는 것은 마스코비라는 오리의 한 종류로서 대만에서 품종개량의 중요한 한 원종이기도 하다. 단지 일반오리와는 생김새가 많이 다른 오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백색과 유색이 있다. 특히 오리를 기러기로 판매하는 것은 일종의 소비가 기만행위이므로 지양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기회를 빌어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오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계